First, I want to thank Jesus Christ for guiding me and my family on a path that allowed us to have this incredible experience. Secondly, I want to thank Pastor Obadiah and all the friends who were with us and helped us create such beautiful moments together.

When Pastor Obi first told me about this mission trip, I thought to myself, "This sounds hard! We have to pay money, take days off work, and go there to work!" Logically, it didn't make much sense. But this isn't something you do with your mind — it's something you do with your heart in order to truly feel it. While I was there, I saw and learned so much. I saw friends serving tirelessly and joyfully, always with a smile — just as Jesus said: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John 13:14-15)

One moment that really stood out to me was when someone came and asked me to cut his hair. He said, "Just do whatever you think looks good." So I cut and styled his hair, finishing with some hair cream. As I watched him in the mirror, I could see in his eyes that he felt transformed. It was as if he saw a new version of himself — his eyes were smiling from within. I asked him, "Do you like it?" and he said, "It's amazing! I never thought I could look this good. This is actually the first time I've ever been to a barber, because we don't have one here." Then he hugged me and said, "I've got to hurry home so my wife can see me before my hair gets messed up — I look so handsome!"

I've been doing this job for seven years, cutting hair every day. But this was the first time I truly felt the beauty of what I do.

What I learned from this mission is that we didn't go there just to help them — in reality, they were the ones who helped us.

먼저, 저와 제 가족을 인도하셔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바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바댜 목사님께서 처음 이 선교 여행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힘들어 보인다! 돈을 내야 하고,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하고, 거기 가서 일까지 해야 한다니!" 논리적으로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 마음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기쁘게, 항상 미소를 띠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한 때였습니다. 그는 "그냥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잘라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머리를 자르고 스타일링하며 헤어 크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변신한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이 내면에서부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나요?"라고 물었고, 그는 "정말 멋져요! 이렇게 잘생겨질 줄 몰랐어요. 사실, 여기엔 이발소가 없어서 제가 이발사에게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 더니저를 끌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내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머리가 흐트러지기 전에요. 내가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7년 동안 매일 머리를 자르며 이 일을 해왔지만, 이번이 제가 하는 일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배운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1) 2025년 표어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롬12:2)입니다.
- 2) 벨라쿨라 원주민 단기 선교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벨라쿨라 원주민 선교 일정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벨라쿨라 원주민 마을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교회되기 위하여 온교회가 하나되어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 3) 경기노회 문화사역 선교팀 (인솔: 홍성득 목사, 최준철 장로, 우종근 장로) 현재 BC주 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을 감당 중에 있습니다. 7월 22일(화)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부탁드립니다.
- 4) 7월 정기 당회 7월 20일(주일) 오후 1:30-
- 5) 7월 목장 모임 7월 27일(주일), 목장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 6) 7월 News Season 모임 7월 31일(목) 오전 10시 -
- 7)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원로목사) 초청 말씀 사경회
- 일정: 8월 8일(금) 저녁 7:30 / 9일(토) 저녁 7:30 / 10일(주일) 오전 11:30-

◉ 교우동정

- 1) 소천 故 김정예님 (우종근 장로 모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 한국 방문 우종근 장로, 김재웅(윤슬기, 시우)

● 7월 주요 행사 일정

- 1) 경기노회 원주민 선교 7월 14일 (월) 7월 22일 (화)
- 2) 7월 목장 모임 7월 27일(주일) -
- 3) 7월 News Season 모임 7월 31일(목) 오전 10시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협동목사 문갑주 목사
- 원로목사 /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목사(청소년부,행정,선교), 한기석목사(젊은이/청년부, 양육) 배영광목사(협력선교사,예배 찬양), 하선미전도사(유치/유초등부,마더와이즈) 이영미전도사(영아부/유아부), 김정숙선교사(시니어 사역) 이우혁전도사(젊은이 예배 찬양 담당), 김지형전도사(인턴)
- 시무 장로 김향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협동 장로** 임선종
- 반 주 김민경, 변순환(새벽예배)

2025. 07. 20 (Vol. 34-29)

大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새롭게 기가 하는 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 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롬 12:2)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주일 예배

※는 일어섭니다.

*	참회와 신앙고백 Call to Worshi	ip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입례 찬양 / 주와 같이 길가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 비추소사	
	대표기도 Prayer		한선애 권사
	환영 및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	헌금봉헌 Offering		헌금위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 복음 John 14:6	인도자
		/l - 길, 진리, 생명" e truth and the life)	권태욱 목사
	결단찬양/기도 Prayer Together	"나의 가는 길"	인도자
*	축도 Benediction		권태욱 목사
*	축복 및 파송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팀

Please scan the QR code to join the service in English.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주일 오후 1:30-)

* 예배의 부름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찬양팀
대표기도	정 희자매
환영 및 광고	인도자
* 헌금 봉헌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	한금위원
성경 봉독 ·····마태복음 Matthew 5:3 ·····	인도자
설교 ······ 행복 I – 심령이 가난한 자 ·····	한기석 목사
결단기도 및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도자
_※ 축도 ······	한기석 목사
» 축복 및 파송찬양	········· 찬양팀

오늘의 말씀 요약

● 본 문 : 요한복음 John 14:6

● 제 목 : 에고에이미 Ⅵ - 길	일, 진리, 생명(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써리한인교회 합심기도 ∞

- 1. 매일 10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 합시다.
- 2. 기도의 300 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 3. 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4. 원주민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 헌금

헌금 방법 안내

※ 이트랜스퍼 : 이메일 주소 offerings2spc@gmail.com - 메모란에 이름, 헌금번호, 헌금분류 표시 (비밀번호: SPC2020)

※ 체크 헌금: Pay to order; Surrey Presbyterian Church

All	ш	I O I
	1010	
וגיא	T III	

주 일	7월 20일	7월 27일	8월 3일	8월 10일
대표기도	한선애	한선애 임경자 _{온세다}	온세대	우종근
		_	예 배	
헌금위원	박소연		" "	
			*	
점심봉헌	_	김향덕	_	안병옥

※ 7월 안내위원: 임경자, 고영미, 이지수, 류연지, 정의규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예배 11:30 am 본관 유.초등부 11:30 am 본관 지하 중고등부 11:30 am 교육관	
	젊은이(청년) 1:30 pm 본관	
새벽 기도회	화요일 - 금요일 6:00 am 본관 1층	
금요 성령집회	금요일 7:30 pm - 9:00 pm 본관 1층	
제자훈련반	● 제자교육 (10주 과정) ▶ 월요반 저녁 7:30 - 9:00 (입문반) ▶ 수요반 저녁 7:30 - 9:00 (심화반) ● 마더와이즈	
청소년 문화교실	금요일 7:30 pm - 9:00 pm 본관 지하 ▶ 오케스트라 클래스 ▶ 웹 아트(Web Art) 클래스	